

보도시점 2026. 9. 7.(월) 14:30 배포 2026. 9. 7.(월) 13:30

AI 시대 국방+제조+보안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 Private AI Initiative과 공동으로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 개최
-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제조, 국방, 보안 분야의 도전과 치열한 노력이 우리 전략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위원장: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서울대 Private AI Initiative(센터장: 천정희 수리과학부 교수)는 9.7일 (월) 14:30 서울대 상산수리관 대강당에서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뛰어난 제조 역량과 AI 도입으로 차세대 전략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은 세계적 수준의 동형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등 첨단기술과 결합된 제조, 국방, 보안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제조, 국방, 보안 분야의 도전과 치열한 노력이 우리 전략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화면 속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공장에서 기계를 움직이고, 전장에서 판단을 돕고,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을 탐지하며,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단계인 AI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과 제조와 보안은 하나의 생태계”라며, AI 2막에서의 경쟁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누가 AI를 현실 세계의 산업과 국방과 안보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대학교의 김주한 연구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도, 그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뢰를 지켜내는 능력이 국가와 산업의 AI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늘 논의가 국방의 실질적인 수요와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량,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신뢰 기술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분과별 발제에서는 방산, 제조, 보안 분야 전문가 6인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실태를 짚고,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제 주요 내용은 참고2 참조)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산, 제조, 보안 분야를 포함한 전략경제 정책과제들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4-215-4930)
		담당자	사무관	송현지 (song15th@korea.kr)



참고 1

행사 개요

- ☐ (행사명)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
- ☐ (일시/장소) '26.9.7(월) 14:30~17:30 / 서울대 상산수리관 대강당
- ☐ (주최/주관)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 Private AI Initiative (센터장: 천정희 교수)
- ☐ (참석)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및 자문단 위원, 연구자, 기업인 등 150명 내외

< 세부 프로그램(안) >

시 간		내 용	비고
14:30~15:00	30'	개회식	개회사: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환영사: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
			축 사: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15:00~15:30	30'	분과별 발제1: 방산	손대권 인하대 물류AX센터장, 前육군 군수사령관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15:30~16:00	30'	분과별 발제2: 제조	윤종필 생산기술연구원 제조AI연구센터장 윤병동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원프레딕트 대표
16:00~16:30	30'	분과별 발제3: 보안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주)크립토텍 대표
16:30~17:30	60'	종합토론	사 회: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참고 2

발제 주요 내용

분야	발제자	주요 내용
방산	손대권 (인하대 물류AX실증센터장, 前 육군 군수사령관) * 전략경제자문단 방산분과위원장	국방AX전략과 방위산업의 미래 - '수출국가에서' 생태계 강국 ■ 단순히 무기수출 국가를 넘어, 미래 기술지형을 결정하는 설계자가 되기 위한 국방AX Full Stack 구축 전략이 중요 ■ 국방 AI 생태계 강국, AI 기반의 방위산업 수출 4대 강국을 향한 전략 제언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장)	방산 소부장AI 수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 구조를 넘어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소부장, SW, AI 강자로 육성 필요 ■ R&D, 표준인증, GVC 진출, 지식재산권 제도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략 제시
제조	윤종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AI연구센터장)	제조 현장의 AI 도입: 어려움과 해결 방향 ■ 제조 현장의 다양한 AI 적용 사례*와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 및 극복방안 소개 * 설계, 설비 진단, 제품 검사, 물류,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등 ■ 실질적인 제조 혁신과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을 위한 기술적 발전 방향 제시
	윤병동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원프레딕트 대표이사)	제조 AX 여정 - 실사례와 방향성 ■ 정부 제조 AX 사업*의 성과인 제조 현장의 자율제조 2단계 개발과 3단계 조건부 자율화 도전사례 소개 * AI 팩토리 구축, 피지컬AI 사업,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제조 에이전트 보급 사업 등 ■ 제조 AX의 방향성과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제언
보안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前 통계청장)	Hub and Spokes 방식의 안전한 국가데이터 연계 체계 ■ 데이터를 한곳에 집적하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 보관(Spokes) 하면서 허브(Hub)를 통해 안전하게 연계, 결합,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제시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주)크립토톨 대표) * 전략경제자문단 양자보안분과위원장	암호화컴퓨팅과 AI보안 ■ '동형암호기술*'을 기반으로 국방·제조 현장의 민감 데이터를 원본 노출없이 기관 간 연계하고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 제시 *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 및 연산할 수 있는 암호기술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상충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 두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암호화 컴퓨팅 기반 데이터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민정설입니다.

오늘 「AI 시대의 국방+제조+보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박영선 위원장님과 전략경제자문단 위원님들,
김주한 연구부총장님, 천정희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 Private AI Initiative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국방, 제조, 보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산업과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방식을 바꾸고,
제조 등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경쟁전략, 국가의 성장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국방과 보안 분야의 첨단기술 역량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방위산업은
뛰어난 제조 역량과 AI 도입으로
차세대 전략 수출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은 세계적 수준의 동형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등
첨단기술과 결합된 제조, 국방, 보안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조, 국방, 보안 분야의 도전과 치열한 노력이
우리 전략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전산업의 피지컬 AI 도입을 통해
제조 공정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목표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센서, 액추에이터 등 주요 부품 R&D 확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한국형 인큐텔 신설을 통해
민간의 기술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시범사업 확대로 개발·실증·조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發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보안 특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에 동형암호 기술을 실증하는 등
사이버 보완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앞에 놓인 AI 시대의 미래 역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연구자와 기업,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하며
우리의 기술 주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정부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방·제조·보안이라는
우리 미래의 핵심 분야가
AI라는 공통의 언어로 만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